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안전한 세계, 한국 국격 제고의 전기



한 충 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교섭대표

핵안보정상회의이란

2001년 9·11 테러를 거치면서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을 탈취하여 각각 핵 폭 발 장 치 (Improvised Nuclear Devices:INC)나 소위 더티밤(Dirty Bomb)을 만들어 터트리거나, 원전 등 핵 시설에위해를 가해 방사능을 누출시키는 (사보타지) 악의적인 시도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9·11 이전에는 방사능 누출은 체르노빌과 같은 안전사고를 상정했으나, 비행기가 뉴욕 WTC를 직접 공격한 것은 테러 수단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이제는 어떤 것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실제로 알카에다가 핵물질을 취득하려고 했던 정황과 정보들이 있으며, 93년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 또는 방사성 물질의 분실·도난·불법거래 건수가 총 2천건이 IAEA에 보고되며 최근 몇 년간은 꾸준히 200건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60%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미국의 새로운 핵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되,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핵테러 방지를 위해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의 방호(security)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핵안보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과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 합의(워싱턴코뮤니케 및 11개분야 50

개 항목의 작업계획)이후의 과제는 각국의 개별 공약사항 등 전반적인 성과이행을 점검하는 것이다.

워싱턴회의 이후 지금까지 핵분열 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은 총 400kg이 회수되었고, 개정 핵물질 물리적방호협약은 17개국, 핵테러방지협약은 12개국에 비준을 완료했으며, 10여 개국이 핵안보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합의 사항들 중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10여 개 정도의 우선적인 분야의 과제들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각국이 취할 구체 조

핵테러·방사능 유출 등 새로운 안보 위협 50여개국 정상 서울서 '핵안보' 위해 협력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IAEA 차원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휴먼 팩터를 강조하는 핵안보문화와 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 통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될 것이다.

국가 간 밀수 및 불법거래 방지의 중요성을 감안, 탐지 기술 및 장비, 핵감식(forensics) 강화 그리고 인터폴 등을 활용한 정보교환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이다.

또한 파괴력에서 핵테러에 비해 약하나, 널리 사용되며 관리가 취약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테러방지 논의도 이번에 본

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핵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편 최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이니셔티브(NTI)가 발표한 각국의 핵물질안보지수에서 북한은 핵물질 보유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내 핵물질 및 시설이 핵안보와 안전 면에서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온 각국의 정상들은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매우 유동적인 2012년도에 한반도에서 3월 하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개최, 국가위상 제고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핵테러방지를 위한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동시에 50여 개국 정상간의 이러한 핵안보 논의의 진전이 비확산, 군축 등 핵의 여타분야에도 신뢰구축 조치(CBM)로서의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핵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G20을 주최함으로써 경제와 금융 그리고 개발분야 등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개최한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최를 통하여 안보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이 한층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 www.seoulnss.go.kr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앞장섭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평화서밋입니다.
2012년 3월 26~27일 세계 50여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서울에 모입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